

광양제철, 저취 내화물 국산화 성공

세관 수 차별화·원가 60% 이상 절감
기술적 문제 발생 시 해결 시간 단축

광양제철소가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 사용했던 '저취 내화물'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원가를 6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광양제철소는 저취 내화물의 국산화에 성공해 1제강공장 전로 한 기에 시범적용을 마치고 공장 전체로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물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 수입품 대비 침식 정도 및 속도 저감 등의 성능 향상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업에 들어갔다.

광양제철소는 우선 1제강공장을 대상으로 조업 데이터를 분석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포스코케미칼은 이를 바탕으로 내

화물 내 세관의 휘어짐을 방지하는 공법을 개발했다.

아울러 기술연구원 제강연구팀은 저취 내화물의 막힘과 침식을 억제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세관 개수와 유량을 고려해 구조를 새롭게 설계했다.

광양제철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롭게 개발한 저취 내화물 'Pos-MHP'를 1제강공장 전로 한 기에 시범적용을 마치고 공장 전체로 확대했다. 이로써 광양제철소 1제강공장은 '국산화 저취 내화물'이 100% 적용된 첫 공장으로 탈바꿈했다.

'Pos-MHP'는 전량 수입해오던 저취 내화물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것과 함께 기존 대비 세관 개수를 차별화하고 원가를 6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저취 내화물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매우 기쁘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향후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모든 전로에 신규 저취 내화물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광양제철소가 새롭게 개발한 국산화 저취 내화물 'Pos-MHP'가 100% 적용된 1제강공장의 전로 앞에서 성공을 축하하고 있다. /광양제철 제공

곡성, 내년 국고 건의사업 조기 발굴 집중

철도공원 조성 등 총 70건 1,038억 규모

곡성군이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2023년 국고 건의사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군정부는 최근 군청 소모타마루에서 '2023년도 국고 건의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총 70건 1,038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 발굴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43건 258억 원이며, 계속사업은 27건 78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2건 36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곡성군이 국고 사업 발굴에 더욱 힘을 쏟고 있음을

역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고회는 유근기 군수가 주재한 가운데 부군수를 비롯해 실과소원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새롭게 발굴한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완하고 원활한 자원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치열한 논의를 펼쳤다.

신규사업으로는 문화관광 분야의 곡성 철도공원 조성사업(118억 원)과 곡성 스포츠센터 건립사업(490억 원), 안전건설 분야에서 곡성 섬진강변 도로 성토사업

(450억 원) 등을 발굴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동악산 생태공원 조성사업(30억 원), 산림 분야에서는 건강취약계층 이용 시설 목초화사업(50억 원) 등이 발굴됐다.

농업분야에서는 곡성도란 농촌융복합 산업화지구 조성사업(30억 원)과 청년 및 은퇴자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20억 원) 등을 새롭게 발굴했다.

곡성군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구정책 분야에 석곡권역 권외자 임시 거주 시설 단지 조성사업(40억 원)을 역점시책으로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계속사업으로는 섬진강 동화정원 문화 예술벨트 조성사업(93억 원)과 옛 장터 주민참여 문화공간 조성사업(58억 원),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437억 원) 등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곡성군은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하는 4월까지 지속적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춘 대응방안을 개발하고, 국고 확보 매뉴얼을 작성해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전방위적으로 나선다는 각오다.

곡성군 관계자는 "발굴한 현안사업을 인구 유입 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며 "특히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의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공정한 법 집행 사회적 약자 보호”

정성록 여수경찰서장 취임

정성록 총경이 제 77대 여수경찰서장으로 최근 취임했다.

이날 정 서장은 총흔담 참배를 마친 후 취임식을 하고 각 사무실을 찾아 인사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정 서장은 취임사에서 “당당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여 시민이 안전한 여수를 만들고 아날로그 세대와 MZ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장부터 노력하겠다”며 “전남청의 주요 7대 추진과제를 목표로 서로 신뢰하며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취임식이후 정 서장은 각 사무실을방문해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누며,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성록 서장은 목표 출신으로 1986년 경찰공무원 순경공채로 입사해 전남청 경비과장, 진도경찰서장, 여성청소년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섬진강댐 수해 주민들, 48% 배상 결정 수용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기간 섬진강댐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배상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섬진강댐 하류 지역 수해피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배상 결정에 대해 섬진강댐 수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해당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에 따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등 4개 시군의 피해를 인제(人災)로 규정한 피해주민 대책위에서 3607명에게 203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다.

당시 집중호우와 함께 댐 방류로 인해

10개 시·군이 천문학적 재산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중소위 1차 조정 결정문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등 4개 시군 피해주민 823명에게 100억 원을 지급하되, 시군별로 기관별 부담비율을 달리 배송토록 권고했다.

실제로 환경부·국토교통부는 50·73.5%, 수자원공사 25%, 전남도 및 4개 시군은 각각 0.75-12.5%를 배상해야 한다. 곡성군의 피해 인정금액 33억 1700만 원으로 기관별 부담비율은 국가 50%, 수공 25%, 도·곡성군 각 12.5%다. 구례군의 피해 인정금액 63억 7700만 원이다. 부담비율은 국가 60%, 수공 25%, 도·구례군 각 7.5%다. /김영민 기자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콘텐츠 ‘대상’

보성군의 대표축제인 '제23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하고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대한민국콘텐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은 이해관계로부터 철저히 배제된 심사위원단의 객관적이고 엄중한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로 10회째를 맞고 있다.

매년 전국의 실력 있는 소리꾼들이 참여해온 서편제 보성소리축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취소될 위기에서 무관중 경연대회로 전환해 개최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전문업체가 대회 기간 경연장을 전담 관리했

으며, 경연자·심사위원 등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참석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인 확인되어야만 축제에 참여 가능했다.

지난해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10월 1일부터 3일 동안 열렸으며 축제 관련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축제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서편제 보성소리의 분향으로 보성은 특별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며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성 있는 판소리·고수 분야의 대표축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클릭! 고흥 속으로



고흥4-H연합회, 쌀 나눔 행사

고흥군 4-H연합회가 최근 곡성 장애인복지시설을 찾아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고흥군 4-H연합회원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모은 쌀 600kg을 가지고 곡성군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찾아 전달했다.

신길호 고흥군 4-H연합회장은 “4-H의 이념에 따라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

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으며,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 4-H연합회는 지·덕·노·체·의 4-H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단체로 지역 사람 나눔 봉사 활동 등을 통해 행복한 고흥 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진준영 기자



구례군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의결

구례군의회가 최근 제287회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구례군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25억 5,000만 원의 추경예산으로 군민 1인당 10만 원의 구례사랑상품권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유시문 의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군민에게 적으나마 위료가 되고,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끄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8대의 회 기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섬진강 수해 피해에 대한 완벽한 보상을 위한 문제 해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손석봉 기자



비틀라카본코리아(주), 성금 2천만 원 기탁

비틀라카본코리아(주)가 최근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0만 원을 여수시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되며, 저소득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생필품과 난방비 등 시설 운영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비틀라카본코리아 임용대 공장장은

“이번 설이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마지막 명절이길 간절히 바라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과 늘 함께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틀라카본코리아는 2009년부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운영비와 시설 개보수비 지원, 명절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